

鄭·孫·李 ‘모바일大戰’ 전력 투구

신당 경선 선거인단 신청 20만명 육박 판세 뒤엎을 후폭풍으로... 조직 총동원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후보 등 경선 주자 3인이 휴대전화 투표에 올인하면서 새통합 민주당의 국민 경선이 ‘모바일 대전’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9일 치러진 휴대전화 투표가 지역 순회 경선을 압도하는 흥행성을 보인 데다 20만 명에 육박하는 선거인단, 70%를 웃도는 투표율은 지금까지의 경선 판도를 통째로 뒤엎을 수 있는 위력이 검증됐기 때문이다.

특히, 새통합 민주당은 10일 일만 5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11일 6만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2차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전체 판세의 흐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통합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은 ‘휴대전화 표시’를 잡기 위해 모든 조직을 총동원하는 등 최후의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우선 지역 순회경선에서 2위로 처졌다가 휴대전화 투표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손학규 후보는 그동안 침묵했던

거대한 여론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막판 대역전을 자신했다.

특히, 손 후보 측은 휴대전화 투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면서 휴대전화 선거인단 접수 시한을 12일까지 이틀 연장을 요구안을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손 후보는 오는 14일 실시되는 6개 지역 경선 가운데 수도권 투표 결과가 전체 득표결과에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 아래 남은 일정을 수도권에 ‘올인’ 하며 오프라인 득표를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1차 휴대전화 투표에서 손 후보에 일격을 당한 정동영 후보는 “대세에는 지장 없다”는 여유를 보이면서도 이완된 지지층을 결속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2차 휴대전화 투표에서 1위에 복귀, 오프라인과 온라인(휴대전화) 양쪽에서 명실상부한 1위 주자로서의 위상을 굳힌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 후보 측에서는 1차 휴대전화 투표결과로 일정부분 이완됐던 조직의 결속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과감 위기를 맞았던 경선관이 정상화됐고 부담으로 작용했던 불법선거 논란이 수그러들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여유도 나타냈다.

휴대전화 투표에서도 3위에 그친 이해찬 후보는 나머지 휴대전화 투표에



새통합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후보가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흔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지지층 결속에 총력을 펴고 있다.

일단 이 후보 측은 정 후보에 대해서는 ‘반칙 후보’라는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손 후보를 향해선 정동영을 문제삼는다는 기본 전략을 갖고 참여 정부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14일 원샷 경선 당일까지 세 겹결

에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후보 측은 인터넷 활용 능력이 뛰어난 지지자들이 홍보 영상 UCC를 적극 퍼나르면서 휴대전화 선거인단을 모았으며 2·3차 휴대전화 투표에서 과거 ‘노사모’가 보여줬던 결집이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국현 대선 조직 ‘창조한국당’ 광주시당·전남도당 20일 출범

문국현 대통령 예비후보의 대선 조직인 가정 ‘창조한국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오는 20일 공식 출범한다.

창조한국당 광주·전남분부는 “오는 20일 발기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창당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시·도당 발기인으로는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인 이근우 변호사 등의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임낙영 대표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창조

한국에 남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근우 변호사와 전승수 전남대 교수 등 광주지역 각계 인사 518명은 11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사회양극화 및 지역갈등 해소, 6·15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민주적 가치를 이어갈 후보는 문국현 후보뿐”이라고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한편 창조한국당 중앙당 발기인대회는 오는 14일 서울 63빌딩에서 개최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선후보 선출

국민중심당은 10일 오후 대전 송송 청소년수련원에서 당직자와 당원, 지지자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단독 출마한 심대평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심 대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수락연설을 통해 “우리 국민 누구도 지금과 같이 한나라당 아니면 비(非) 한나라당이라는 선택을 강요받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중심당이 이번 대선에서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중심세력으로 당당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심 대표는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어 11일 오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대선 주자로서 본격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출마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심 대표는 1966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청와대 행정수석 등을 역임했으며, 1995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1월에는 국민중심당을 창당해 당 대표를 맡아 왔으며, 지난 4월 25일 치러진 대전 시구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연합뉴스

‘모바일 투표’ 메시지 발송 논란

한 당직자에도 참여 권유

새통합민주당이 처음 실시중인 휴대전화(모바일)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메시지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나경원 대변인 등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에게도 발송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당의 휴대전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메시지가 9~10일 이틀간 두 차례나 왔다고 공개했다.

전날 밤 받은 메시지는 ‘내일(10일) 민주당 경선 휴대전화 투표 신청 마감, 주변권유 요망’이라는 내용이 담겼고, 이날 회의 직전에 다시 받

정동영측 ‘평화 경제포럼’

경찰, 인터넷 서버 압수수색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새통합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의 명의로용과 관련, 정동영 후보 지지모임인 ‘평화경제포럼’의 인터넷 서버와 신용인증 서비스업체 크레딧뱅크의 서버 로그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국내 최대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인 KIDC와 크레딧뱅크가 입주해 있는 여의도 한국신용평가정보 건물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5일 이해찬 후보측 선거 병렬 종합상황본부장이 “전 열린우리당 당원 한모(40)씨가 본인도 모르게 선거인단 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평화경제포럼 공동대표 등 11명을 고발해 음에 따라 수사에 착

‘범여권 후보 단일화

민심 흐름 바탕돼야

민주당 이인제 후보

민주당 이인제 대선 예비후보는 10일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는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필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민심의 흐름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전 열린우리당 당원이었던 부모와 함께 3명이 선거인단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해 이해찬 후보 캠프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새통합민주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누군가 한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렬 종합상황본부장이 “전 열린우리당 당원 한모(40)씨가 본인도 모르게 선거인단 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평화경제포럼 공동대표 등 11명을 고발해 음에 따라 수사에 착

이수성 전 총리 오늘 대선출마 선언

이수성 전 총리가 1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약칭 화도연) 발족식을 갖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전 총리가 대표를 맡는 ‘화도연’에는 조성한 전 국립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과 선우중호 전 서울대총장 등 전직 대학총장 19명, 김양배 전 복지부장관, 김길남 전 민주한인회총연합회장, 소설가 이운기씨 등 5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사회단체 성격으로 출발하는 ‘화도연’은 이날 발족식 후 시도당 창당을 거쳐 이달말께 중앙당을 창당할 계획이지만 일단 창당 과정에서는 현역

정치인의 참여는 배제하고 비정치권의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세력화를 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새통합민주당 참여를 거부했던 김희규 전 경남지사, 김원웅 의원, 강은태 전 내부부장관, 이흥구 전 총리, 이현재 전 서울대 총장 등과의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명인내

10월 11일 목요일

1. [정치] 새통합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후보가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흔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 [정치] 문국현 대통령 예비후보의 대선 조직인 가정 ‘창조한국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오는 20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

3. [정치]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선후보 선출. /연합뉴스

4. [정치] ‘모바일 투표’ 메시지 발송 논란. /연합뉴스

5. [정치] 정동영측 ‘평화 경제포럼’ 경찰, 인터넷 서버 압수수색. /연합뉴스

6. [정치] ‘범여권 후보 단일화’ 민심 흐름 바탕돼야. /연합뉴스

7. [정치] 이수성 전 총리 오늘 대선출마 선언. /연합뉴스

전통 침·뜸 공개강좌

• 의료개방 및 의료법 개정 대비 침구인 양성과정
• 중국 추나침구사·피부미용사·안마사 자격취득

주요 체험전용침, 뜰, 부항, 경혈, 경락, 이침, 특종침, 피부관리, 과목 비만침법, 미용침법, 두침, 수지침, 인공신경관리, 한방기초 등

광주분원 공개강좌 및 설명회

• 일시 :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 위치 : 광주시 동구 학동 649-46번지 3층 (북산 중앙사립대학 과반출구에서 직행 5-00주유소 앞 건물)
• 수강비 : 매주(목) 오후 2시 ~ 6시 (총 16주완선)
• 입학비 : 38,000원 (교재포함)
• 참가자격 : 나이,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1544-5359 / 236-3516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